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을 베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2006년 제1차 정치기 훈련을 마치고

바뀌어진 나의 삶,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개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피로 물든 십자가를 지고 천히 우리를 찾아주신 은총이 있었기에 불운을 온갖 추방에 없었습니다. 어떤 학생들로부터 교령의 어린신들까지! 보혈의 말씀은 교회의 모든 예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죄인들의 심령 끝까지 숨겨 두었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보혈의 은총으로 밝히 드러난 모든 죄를 씻기내고 그 안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심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제 심령 깊숙히 새겨진 은총의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성도들은 나아갈 것입니다. 공중천에 잡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와 핏박이 있더라도 하늘의 이상을 바라보며 또 한 명의 순교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중헌의 성도들은 세상을 좇아 가는 거짓 성도와 아나, 수줍은 온전이 되고 자신의 진부를 내어 드러며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이미 저는 주님으로 바뀐 삶(exchanged life)이 되었습니다!

정치기 훈련 말씀

그리스도인의 바뀌어진 삶 (갈 2:20)

1. 그리스도인의 바뀌어진 삶은 가능한가?

바뀌어진 삶(exchanged life)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롬 8:22).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그 고통과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 빚어낸 결과들을 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요일 4:9). 그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야금 그의 삶을 살게 하셨다(히 1:2,3,8; 5:6-10). 그런데 이 바뀌어진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주와 함께 죽을 때 가능하다(갈 2:20). 여기에는 주고 바꾸는 엄청난 교환의 비밀이 있다. 무가치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다. 따라서 바뀌어진 삶은 과거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 우리의 미래까지도 구원하신다(요일 1:9).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롬 8:32).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질상 끝까지 사랑하신다(요 15:5).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하여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그의 삶을 교환하실 것이다.

2.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자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사 37:5).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관계를 그에게로 돌려야 한다. 형식적,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의식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질문도 없어지며 의전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

서 우리는 행복한 삶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골 2:3). 완전한 주님의 계획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라(골 12:2).

정치기로서 우리 삶의 기초도 오직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 나의 가정과 친구 역시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의 사랑과 거룩한 신뢰 속에 놓여 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나에게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뿐이다! 분명히 기억하자. 우리 삶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 교환된 삶은 가능하다.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바뀌어진 삶은 가능하다.

3.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자

바뀌어진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자. 교환된 삶은 주고 바꾸는 두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내 자신을 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음을 내가 믿는 것이다. 자신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골 3:22,23).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행하여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 행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 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을 믿자(골 3:20).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실 수 있도록 온전히 믿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것도 하실 수가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자신의 삶을 우리와 교환하신다(롬 1:7).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것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한 바 되어 우리의 것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사신다고 하셨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이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할 때에 비로소 이 교환된 삶, 바뀐 삶(exchanged life)이 시작될 것이다!



WHEN YOU HAVE NO FAITH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so tim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Mark 4:40)

Everyone knows that nutritional food sustains the physical body, and without it, the body suffers negative conditions. Over time, poor nutrition leads to death. Faith sustains the spiritual body, and without it, the soul hardens. In the end, lack of faith brings eternal damnation. Jesus Christ is not visibly present today, so Christians live by faith in the reality of His presence and the certainty of all His promises concerning their future,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2 Cor. 5:7). As a believer, you have to live by faith,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Rom. 1:17). When you have no faith, many bad things happen. What are those things?

When you have no faith, fear takes over. In today's Bible verse, Jesus says, "Why are you afra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He did not ask His disciples why they had no courage, but rather why they had no faith. Their fear of drowning in the middle of the Sea of Galilee revealed their lack of faith. Fear causes torment and brings its own punishment. 1 John 4:18 says,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t fear, because fear involves punishment, and the one who fears is not perfected in love." Fear and faith cannot dwell together in one house. There is no way for the two to come together,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Mt. 6:24). Lack of faith creates fear, but faith in Jesus Christ eliminates it.

When you have no faith, you reason with the devil. You come up with all kinds of reasons why you can or cannot do this or that. Satan loves to play on your ignorance by softly whispering or mumbling things in your ear that make you question God's directions and intentions. Those of little faith find the devil swaying them to doubt God's word. They talk among themselves about doctrines, principles, methods, and come up with all kinds of reasons why they think God does this or that. Paul said, "I am not ashamed;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I a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until that day"(2 Tim. 1:12). Trust builds confidence, but a lack of trust builds uncertainty. God is good, so praise Him. God is faithful, so rely on Him. God is love, so enjoy Him. God is almighty, so do not worry. God is all knowing, so reason with Him. If you do not believe, it is because you have a devilish reason.

When you have no faith, you defeat the purpose of God. Your heart hardens, so that there is always a veil over it. People that lack faith live under the law, not grace. 2 Corinthians 3:14-16 says, "But their minds were hardened; for until this very day at the reading of the old covenant the same veil remains unlifted,

because it is removed in Christ. But to this day whenever Moses is read, a veil lies over their heart; but whenever a person turns to the Lord, the veil is taken away." Has Christ taken away the veil over your heart? Paul told the Thessalonians, "You are witnesses, and so is God, how devoutly and uprightly and blamelessly we behaved toward you believers; just as you know how we were exhorting and encouraging and imploring each one of you as a father would his own children, so that you would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God who calls you into His own kingdom and glory"(1 Thes. 2:10-12). People who veil their hearts do not accept the truth. Everyone who veils their hearts of God's love will receive judgment.

When you have no faith, you rob yourself of the power of God. When Jesus' disciples asked Him why they were unable to drive out a demon from a boy, He said, "Because of the littleness of your faith; for truly I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the size of a mustard seed, you will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and nothing will be impossible to you"(Mt. 17:20). Jesus could not do many miracles in His hometown because of the townspeople's unbelief (Mt. 13:58). Peter told the lame man by the temple gate, "I do not possess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ne-walk"(Acts 3:6)!

When you have no faith, you depart from God. Hebrew 3:12 says, "Take care, brethren, that there not be in anyone of you an evil, unbelieving heart that falls away from the living God." God knows your heart; He knows everything. Where are you standing right now? I hope you can pray,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ry me and know my anxious thoughts; and see if there be any hurtful way in me, and lead me in the everlasting way"(Psalm 139:23&24). Faithlessness leads to condemnation, "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judged; he who does not believe has been judg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Jn. 3:18). The Bible tells us, "Whatever is not from faith is sin"(Rom. 14:23). When you are confronted with doubt, cry out to the Lord, "I do believe; help my unbelief"(Mk. 9:24).

Faith is great! Faith leads to victory! Faith overcomes the world. As Jesus said,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Mk. 9:23). If you do not have faith, your spiritual life is in great danger. Please search your heart and come to the Lord. Trust Jesus. Deny yourself and trust Him only. Take the cross He offers you and follow Him to heaven. Amen. ✠

다들 주일 설교

믿음이 없을 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40)



김성완 목사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된 영양 실조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영양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결국 믿음의 부재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끕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살아 계심과 신자들의 미래에 관한 주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후 5:7). 신자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두려움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용기가 없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믿음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고통을 낳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형벌이 됩니다. 요한일서 4:18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과 믿음은 한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마 6:24). 믿음의 결핍은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타협

믿음이 없을 때 사단과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온갖 이유들을 제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 부드러운 말로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지시나 의도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단의 의해 요동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 고리, 원치, 방법들을 들먹이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믿음은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불신의 건물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 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서 항상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총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3:14-16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권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권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권이 벗어지리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권을 벗겨 주셨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살전 2:10-12). 마음이 베일에 가려진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능력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소년에게서 귀산을 찾아낼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마 13:58).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 있던 얇은뿔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

심판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3:12은 말합니다. "형제들이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시라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24).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 의심이 밀려올 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만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막 9:24).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믿음은 승리를 줍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디다(막 9:23).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분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천국까지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죽은 자가 다시 살까? (욥 14:14)

우리의 삶에는 신비로운 것이 많이 있다. 특히 죽음에 관한 것은 더욱 그렇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자가 다시 살까?' 인류는 역사 이래로 계속 질문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신론자는 "아니오"라고 답한다. 불가지론자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한다. 그러나 신자는 "예"라고 답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은 뒤에 다시 산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분명히 죽는 것을 알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사람은 나이, 지위 고하,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죽는다. 죄인은 물론 의인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은 죽어 한 층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죽음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삶에 애착을 갖는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지하여 윤택한 삶을 살면서 죽음을 잊으려고 노력한다. 삶을 즐기려고만 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우리는 분명히 죽는다.

우리는 삶이 짧은 것도 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우니 기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약해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욥 14:12). 우리의 삶은 꽃과 같다. 그래서 작은 기후의 변화에도 떨어지는 꽃처럼 우리의 삶은 짧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나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4). 또한 우리의 삶은 안개와도 같다. 드레스라가 969년이나 살았지만 영원히 비하먼이 또한 짧다. 이처럼 우리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의 삶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매우 짧은바 사실이다. 우리의 삶이 짧고 유한하다면, 우리는 '죽음 후에 다른 삶이 있을까?'의 질문을 하게 된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에서 건지리야?'(시 89:48).

욥은 그의 질문에 대답한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농기를 기다렸거니와"(욥 14:14). 욥은 이 질문에 대답한다. "내가 알거니는 나의 구적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25,26). 계속해서 욥은 대답한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라 내 눈으로 그들을 보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거니와"(욥 19:27). 욥은 하나님의 실리를 바라보고 있다. 죽음을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욥의 대답 속에는 고난 후에 있을 영원의 설명이 담겨 있다.

다른 자들은 대답한다 다니엘도 죽음 후에 있을 삶에 대해서 말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단 12:2).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영원한 축복 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져올 수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필박하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 고백하였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8). 또한 바울은 전하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예수님은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 16:24).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1,52).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지 말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라!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찬 478장). 나의 계획과 욕심을 쫓으며 일로만 주님을 찾고 있다면 지금 곧 회개하라. 이제 곧 죽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의 삶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죽음 후에 있을 바라는 것이여 거기까지 말고 우리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니 심판의 부활이니를 생각하라(요 5:28,29).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골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 1:18). 사망은 죄로 인해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십자가의 공로로 모두 해결되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우리의 삶은 짧고, 우리는 결국 죽는다. 죽음 후에 우리는 부활한다. 그런데 신자의 부활은 절대적인 승리의 순간이다. 반면에 불신자의 부활은 절대적인 실패의 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믿음의 선전들은 짧은 삶 속에서도 영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비결은 믿음에 있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믿지 못하였도 그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의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히 11:13).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축복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고생과 소고과 다 끝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쉬 때"(찬 289장).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 "나의 교만, 의지,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소서." 아멘.

진리 등대의 사명을 다하는 건축위원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며"(고전 3:10)



정길(장로, 건축위원장)

2006년을 시작한 지 여섯째 같은데 벌써 2월의 반이 지났습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는 제1차 정기회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바뀌어진 삶을 소망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바깥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갈 2:20). 특히 죄인인 저희들에게 밝힌 건축위원회의 일을 위해서 더욱 겸손히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성령을 건축한 지 20여 년 가장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우선 본당 구역의 석재 보수, 목장관 리모델링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양로원 건축, 제2 출현동산 석축 공사, 도로보정 공사 등 복음을 위한 시설물 마련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증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시설물들을 건축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것은 이 모든 시설물들이 복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흐리는 일에 악용되

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시설물의 보수이든 건축이든 무엇을 하든지 먼저 복음을 위해 합당한지 기도하며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주께 하듯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는 주님의 교인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피의 흔적이 있는 교회 시설물을 아끼고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자연적인 훼손은 어쩔 수 없지만 시설물의 인위적인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보수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주님을 대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시설물을 아끼고 조심할 때 우리 교회는 전자의 등대로 무럭 무럭 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한데 않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마 4:16).

대속의 은혜를 전하며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롬 3:23). 그럼에도 주님은 저희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올해도 변함없이 교회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성결하 할 일들을 찾아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대속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일에 더욱 간절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기 부인과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도 팔기없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주님의 계획

우리 팀은 농아인들이 중심이 되어 선교하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계획했다. “준비 때부터 선교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다.

첫날부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셨다. 현지의 한 농아인 학교를 방문했지만 우리들은 농아인들을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은 길을 열어 주셨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농아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교제하게 하셨다. 또한 0.4%에 불과한 그리스도인 중의 한 명인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전도지를 전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한 학생의 집까지 방문할 수 있었다.

또 한 농아인 학교를 찾아갔을 때는 무슬림들의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월요일에 다시 방문할 것을 우리끼리 약속하고 학교 앞을 떠나기 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창밖에서 우리의 기도 모습을 보고 수화를 하며 반기는 사람이 있었다. 농아인이었다. 주님은 우리를 굳게 닫힌 학교 앞에서 그냥 속소로 보내지 않으시고 농아인을 만나게 하셨다. 학교 앞을 떠나기 전 수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농아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어찌 되어질 일인가?

이처럼 주님은 전혀 계획이 없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농아인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 참 경이로운 일이었다. 글로는 다 표현 못 할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이 이런 선교를 통해 무수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현지에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날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 그들의 삶도 주님이 주관하시기에...”

문성옥(에비다부팀)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 ◆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움 뿐입니다.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에 충실하도록 기도하여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조정만)
- ◆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3차 십사까지 받고 나니 부뚫아졌습니다. 또한 자기 부인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조하은)
- ◆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교를 가기 전까지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성민)
- ◆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 항상 기뻐십니다. 또한 선교지의 영혼들이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성민)
- ◆ 아직 미숙하고 약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미래)
- ◆ 선교를 처음 갑니다. 많이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준식)
- ◆ 제가 믿고 제가 바라보는 구원의 길을 알려겠습니다. (이희진)
- ◆ 중등1부 학생들에게는 선교 준비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을 텐데 어른들 못지 않게 순종하며 따르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김성은, 교사)
- ◆ 우선 저 자신부터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낮아지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팀장과 팀원들을 섬기면서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권역원 집사, 총무)
- ◆ 주님께서 선교를 통하여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중등1부는 아직은 연약한 지체이지만 그럴수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아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김정은 권사, 팀장)



*중등1부 2팀은
내일(20일)부터 토요일(25일)까지
십자가를 전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중등1부에서인
2개의 팀이 함께 선교를 나갑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저희가 간 곳은 현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저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더욱 자신을 부인하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노방 전도와 학교 전도를 중심으로 사역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공휴일을 맞아 전교생이 모여 발표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는 부족한 입술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가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그 시간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사역을 무사히 마쳤고, 앞으로 그곳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용길(인수집사, 고등부 6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2월 6일(월) ~ 2월 15일(수)	대학부	이용수
2월 6일(월) ~ 2월 16일(목)	대학부	이신동
2월 7일(화) ~ 2월 15일(수)	대학부	이근호
2월 7일(화) ~ 2월 15일(수)	대학부	윤석민
2월 7일(화) ~ 2월 16일(목)	대학부	유상태
2월 7일(화) ~ 2월 16일(목)	대학부	박충규
2월 8일(수) ~ 2월 16일(목)	벨리오펜스트라	김일구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박옥현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오순도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권영목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임창식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유년부	김홍기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중등1부	양한원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중등1부	김정준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중등1부	홍원석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고등부	구재원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고등부	이양선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고등부	김영환
2월 20일(월) ~ 2월 28일(화)	외선부	홍순길
2월 21일(화) ~ 3월 1일(수)	직 원	손장애

예수님만 바라며!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용인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잠의 유혹을 이기고 나오는 것이 많이 어렵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니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저의 삶은 자기 부인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매사에 자기 부인이 아닐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만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말씀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심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진보다 더욱 철저히 준비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몰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믿기에 오늘도 저에게 맡겨 두신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주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재영(인수집사, 18교구)

참 회개

2005년도 마지막 구역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사오니"란 제목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부끄러움과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금요 찬양집회 시간이었습니다. 강단 앞 성구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또 한 번 가슴이 쿡하고 울었습니다. 왜 이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 신년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함이다." 말씀으로 또 한 번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야만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뇌우치고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 회개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죄인을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역예배를 통하여, 금요집회를 통하여,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연약한 제 모습 모두 내려놓고 진정 회개한 것들을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믿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구원하여 여저 주옵소서. 진실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며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김선재(권사, 15교구)

방림교회 겨울 사역



말씀 · 은혜 · 감격 사역일지

첫째날: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주함 가운데서도 2박 3일간의 겨울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날 겨울 성경학교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율동과 찬양을 곁들이고 말씀을 외우고 아이들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쁘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둘째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첫째날과 마찬가지로 말씀에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암송하게 하자 아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공동체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제례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배울 때 아이들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계획하고 기대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날: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정리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해 믿는 자의 해야 할 일은 전도와 선교임을 전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아이들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량대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렇게 행할지 주님을 기대하게 되었고, 박차오르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주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렘루야!

홍은표(대학부)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저희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방림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중등부에서 이르는 30여 명의 어린 영혼들을 대상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작년에 이어 다시 만만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서 작년과는 달리 조금씩 변화된 모습들이 엿보였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시키시는구나!' 비록 떠돌고 장난치고 '달란트 더 달라!'고 떠드는 어린 영혼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방림교회 주변에 사시는 어른들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일기에 쉽게 그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굳은 마음과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 헌(대학부)



교회 탐방 97 차량 안내부

작은 순종, 큰 기쁨!

차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차량 안내부의 안내를 받는다. 이들은 뜨거운 여름날에도 칼바람이 불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도 상함을 가리지 않고 늘 주어진 자리에서 차들을 맞이하여 안내하는 일에는 임을 바라고 있다. 이분들이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

차량안내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차량안내부에는 65명의 집사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107개의 차로 나뉘어져 교의 전체의 주차 안내를 담당합니다. 모두 사명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양철주 장로)

8년에 차량관리부로 시작되었고, 중간에 명칭이 차량안내부로 바뀌었습니다. 한 주에 3,800여 명의 차를 안내하여 교회의 주차 질서를 돕고 있습니다. (이영준 안수집사)

안내부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다른 봉사 부서와는 달리 저희 부서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오랫동안 봉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낮은 자제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봉사라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부서지요. (주영환 안수집사)

성도들이 잘 모르는 주차 질서를 소개해 주실까요?

교회의 직권자들은, 주차하기 쉽고 편리한 곳을 양보하고 원래의 지정 구역에 차를 세워 시민 존경심을 다스립니다. 새신자들이 처음 와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성 안수집사)

경유 차량은 지상에 주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과 교육관 통로에 주차하실 때는 기어를 중립에 두어 차량을 이동하기 쉽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영준 안수집사)

제2교육관 장애인(어바다부, 사령부) 주차석이 부족합니다. 이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승호 안수집사)

금요일때 가끔 지하 2층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잠시 정차해 둘 때에 옆면에 안전 관게를 반드시 사용을 꺼주셨으면 합니다. (윤서만 안수집사)



충격복치단 사거리는 통행량이 특히 많으므로 방향등을 켜고 안내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박승호 집사)

어떠한 상황이라도 보행자 우선이어야 함으로 차량 소지자들이 양보하셔야 합니다. (박원화 안수집사)

분당 양은 노약자 장애인 위주로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분당 양은 주차장을 하셋을 경우 예매 후 즉시 이동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한 대의 차량이 100여 명의 차를 금씩 못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협조 없이는 안전된 공간에 최대의 주차 차량을 확보 하는 일은 불가능하지요. (김동만 집사)

차량안내부에서 받는 은혜는?

간혹 안내부가 아닌, 통게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입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돌아보며 저를 자꾸 나누게 됩니다. (김명성 안수집사)

차량 안내가 힘들긴 하지만 누가 애도 해야 할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김동만 집사)

주일 아침의 경건회와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처음에 안내를 하면서 목소리가 들린 적도 있으나 차를 부양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박원화 안수집사)

찬바람과 매연을 마시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죽어가는 십자가의 기쁨만을 맛보고 있습니다. (양철주 장로)

몸을 낮추어서 봉사하면서 믿음을 지치고 있습니다. (주영환 안수집사)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사하십니다. 그러나 스

티커를 발발받은 성도들은 각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영준 안수집사)

바기타와 함께, 희망을 경험합니다

주차 위반

3월 24일 오전 12시부터 12월 20일 12시까지

성도들이 쓴 소리를 받아야 하는 부실일수록 고충이 크다. 한 번쯤 차량안내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안 마음을 상상해 보자. 우리는 고마운 그분들의 충고를 잘 받아 들여야겠다. (권진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항상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면 기쁨을 느끼고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어려서부터 찬양대를 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이제서야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쁜 찬양대를 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세상적인 노래보다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었고, 찬송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로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야 죽였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 드린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야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네 영원 행복 받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실천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하는 공부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공부라 아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처럼 지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여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야 나의 죄 위하여 보배를 흘리니 죄인 반소스” 아멘

표세현(예쁜 찬양대)

♡ 새 · 가 · 족 · 을 · 완 · 영 · 함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31	이현용	7 장년부	이상배(12)	568	김영준	7 장년부	박승호(2)	605	양정호	11 장년부	김세현(11)
532	이승현	19 장년부	정민수(17)	569	김태현	7 장년부	박승호(3)	606	양정호	5 장년부	이영희(16)
533	서재환	12 대학부	김정혜(16)	570	김영준	19 대학부	이현숙(2)	607	장소호	19 대학부	박승호(1)
534	신현하	17 장년부	김영준(17)	571	최영현	19 대학부	이현숙(2)	608	김영준	19 대학부	황영희(1)
535	이복실	12 장년부	구순숙(1)	572	이영준	19 고등부	이현숙(11)	609	김영준	16 장년부	김정혜(16)
536	정지호	12 대학부	이현숙(1)	573	이영현	18 장년부	신복자(18)	610	정준우	1 장년부	노영기(1)
537	이수정	19 외선부	홍승희(1)	574	오영환	18 장년부	전진혜(16)	611	김영준	19 장년부	이영희(1)
538	서재환	19 외선부	박정현(12)	575	박승호	19 대학부	김정혜(1)	612	전진호	19 대학부	홍영희(16)
539	윤영자	19 외선부	박정현(12)	576	노영환	19 장년부	김정혜(1)	613	김영준	19 대학부	김정혜(1)
540	김영환	19 장년부	김정혜(12)	577	고영준	19 장년부	정진혜(12)	614	이영준	19 대학부	김정혜(1)
541	이영준	12 장년부	유정현(12)	578	이영준	19 장년부	김정혜(12)	615	이영준	17 장년부	박승호(10)
542	조정근	9 소양부	이영현(11)	579	최영환	19 장년부	유 철(1)	616	신복자	7 장년부	김순희(1)
543	송재철	12 장년부	국인숙(1)	580	정영현	18 장년부	이영희(1)	617	나기주	19 외선부	유정현(1)
544	김인기	5 장년부	김영준(1)	581	이영준	5 소양부	한진희(1)	618	이영준	19 외선부	배영환(1)
545	홍진희	5 장년부	홍승희(1)	582	고영환	19 장년부	이영현(1)	619	이영준	19 외선부	배영환(1)
546	신복자	19 장년부	김순희(1)	583	김정혜	19 장년부	김정혜(1)	620	이영준	19 외선부	배영환(1)
547	박승호	19 장년부	김정혜(1)	584	이영준	19 고등부	유정현(1)	621	이영준	19 외선부	배영환(1)
548	정영현	5 장년부	이영현(1)	585	박승호	6 장년부	김정혜(1)	622	이영준	19 외선부	배영환(1)
549	류정현	19 장년부	유정현(1)	586	유정현	8 장년부	이영현(1)	623	전진호	15 장년부	변영환(1)
550	박승호	19 장년부	유정현(1)	587	최영환	19 외선부	조영환(1)	624	전진호	13 장년부	이영현(1)
551	한영희	1 대학부	황영희(1)	588	이영준	9 장년부	서진희(1)	625	전진호	19 장년부	이영현(1)
552	정영현	19 장년부	유정현(1)	589	김영준	19 장년부	서진희(1)	626	정영현	19 장년부	이영현(1)
553	서재환	19 장년부	김정혜(1)	590	김영준	19 장년부	황영희(1)	627	정영현	19 장년부	이영현(1)
554	김영환	14 장년부	이영현(1)	591	서재환	19 장년부	최영환(1)	628	박정현	19 장년부	이영현(1)
555	신복자	14 장년부	이영현(1)	592	서재환	12 장년부	김정혜(12)	629	정영현	19 장년부	이영현(1)
556	서재환	5 장년부	김정혜(1)	593	이영준	12 장년부	최영환(12)	630	전진호	19 장년부	이영현(1)
557	박승호	5 장년부	김정혜(1)	594	최영환	12 장년부	최영환(12)	631	유정현	19 장년부	이영현(1)
558	김정혜	5 장년부	김정혜(1)	595	이영준	12 장년부	최영환(12)	632	전진호	19 장년부	이영현(1)
559	유정현	1 장년부	김정혜(1)	596	이영준	12 장년부	최영환(12)	633	전진호	19 장년부	이영현(1)
560	서재환	1 장년부	김정혜(1)	597	이영준	12 장년부	최영환(12)	634	전진호	19 장년부	이영현(1)
561	김정혜	1 장년부	김정혜(1)	598	최영환	12 장년부	최영환(12)	635	전진호	19 장년부	이영현(1)
562	정영현	1 장년부	김정혜(1)	599	김영준	12 장년부	최영환(12)	636	정영현	19 장년부	이영현(1)
563	유정현	1 장년부	김정혜(1)	600	이영준	19 외선부	최영환(12)	637	박정현	19 장년부	김정혜(1)
564	김정혜	19 대학부	황영희(1)	601	박정현	19 장년부	최영환(12)	638	이영준	19 장년부	김정혜(1)
565	서재환	19 장년부	김정혜(1)	602	최영환	16 장년부	박정현(1)	639	정영현	19 대학부	이영현(1)
566	신복자	1 대학부	박승호(1)	603	김정혜	16 장년부	조영환(1)	640	전진호	13 장년부	이영현(1)
567	김정혜	19 대학부	홍영희(1)	604	김정혜	15 장년부	김정혜(1)	641	전진호	19 장년부	이영현(1)

※ 후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분당 ZOS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이종대 2.20	정원희 2.20	박건익 9.14	류병희 1.20	김영훈 정년부
여국근 4.20	안영득 4.20	나영명 17.20	정진호 3.20	강용덕 3.20
고창환 13.20	위진광 4.20	김익환 14.20	차 훈 15.20	임현덕 7.20
이희식 6.20	최충렬 6.20	하종철 15.20	안진희 16.20	정종삼 16.20
양재홍 1.20	이성진 6.20	조규호 9.20	최성진 9.20	이재형 통년부
이경준 4.20	이창술 6.20	김준호 6.20	윤승진 6.20	황진섭 정년부
정성영 4.20	이종훈 4.20	김덕서 통년부	김성훈 4.20	

■ 여전도사

신두자 1.20	윤선자 10.20	한영순 10.20	김익식 11.20	홍순애 12.20
이옥주 4.20	김갑자 6.20	안태순 18.20	김정연 22.20	강덕필 14.20
최진심 7.20	전근희 7.20	김영순 8.20	정경자 15.20	김경희 15.20
이복순A 19.20	류진희 9.20	한성임 13.20	임태주 4.20	강영미 소통부
목미자 4.20	이복순B 9.20	강호수 통년부		

■ 찬양감독 강영구

■ 찬양지휘서 서순경 김원섭

■ 찬양대장 서조연

■ 찬양전주자 강은희

■ 선교 사무원